지역 소식통

귀농귀촌지원센터 이전

부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기존 행안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부안읍 부풍로 99번지 1층으로 확대 이전했다고 밝혔다.

군은 귀농귀촌 활성화와 귀농 창업 지원 등 귀농귀촌인 밀착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확대 이전했다.

부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그동안 농업기술센터내에 노후된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며 상담애로와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새로 자리를 옮긴 사무실은 보다 넓은 공간과 소규모 교육장도 확보해 쾌적한 환경에서 상시상담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5년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문을 연 부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는 작년까지 5000여명의 귀농귀촌 상담인원이 다녀갔고 1500여명이 귀농귀촌 교육을 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양파 · 마늘 의무자조금 단체가입 신청기한 연장

정읍시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가입 신청기한이 오는 4월 30일로 연장됨에 따라 막바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미가입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은 양파·마늘 가격 불안정 등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중심의 수급조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 설립 시 의무자조금과 농식품부 사업비를 매칭해 양파·마늘 소비 확대와 공급관리 등 농업인이 선제적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과 폭등 방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는 타 품목 의무자조금과 달리 소비 촉진보다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치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회원가입을 높이기 위해 양파·마늘 분야의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을 의무자조금 가입 농가로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노인복지 새장 연다

정읍시, 친환경 · 지능형 '공공 실버주택' 건립사업 순항

160억원 들여 착공… 복지 · 보건 '원스톱 서비스' 가동

'백세시대'에는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잘 늙어가기 위해 주거와 건강, 음식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노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주거공간 분야에서 백세시대 바람이 크게 불고 있다.

건강하게 100세를 준비하는 생활 습관을 위해 굳이 교외로 나가지 않아도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 관심을 받는다.

이에 따라 쾌적한 공원이나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읍시도 백세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생기 넘치는 삶을 위한 '도심형 공공 실버주택' 시대를 연다.

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도심지역 노인들을 위한 '공공 실버주택'을 건립한다. 공공 실버주택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생활지원과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적화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주거 안정 강화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공공 실버주택' 조감도.

시는 2017년 국토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마쳤다. 고령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 실버주택은 총사업비 160억 원(국비 107, 시비 53)이 투입된다.

시는 노인 빈곤층 해결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앞장선 지역민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연면적 7,821㎡의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11층으로 지하층에는 주차장이 조성되고, 1층은 실버복지관이 들어선다. 실버복지관은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건설비와는 별도로 입주 후 5년간 매년 2억5천만 원씩 모두 12억5천만 원의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이곳에서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과 돌봄시설, 문화센터, 취미활동실 등이 조성되며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2층부터 11층까지는 전용면적 26㎡ 규모의 실버주택 88세대를 건립해 65세 이상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시는 고령자인 입주자의 생활환경과 편의성을 고려해 맞춤형 안전설계로 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욕실과 침실 등에 비상시에 호출할 수 있는 비상 호출 버튼이 설치되고, 좌변기나 샤워 수전의 안전손잡이 설치, 장애물 없는 건축 등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공사를 추진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최근 심원면 진채선 생가터에서 '내 고장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을 펼쳤다.

고창군 해양수산과, 진채선 생가터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고창군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최근 심원면 진채선 생가터에서 '내 고장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을 펼쳤다.

진채선 생가터는 남성광대의 유리천장을 깬 최초여성 판소리 명창 진채선이 태어난 집이 있던 곳이다. 진채선은 여성의 사회 활동이 어려웠던 시기에 뛰어난 재능으로 동리 신재효의 최초의 여성 제자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판소리 명창이다.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진채선 생가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 훼손 여부 점검, 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등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라남근 고창군 해양수산 과장은 "지킴이 활동을 통해 문화재가 우리 근처에 있고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존재로 인식할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적극행정 실행계획 본격

고창군, 군민행복 현실화

고창군이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추진해 군민 행복 구현을 실현한다.

고창군은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적극행정에 대한 군민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추진체계 구축 등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는 공직 내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추진체계 고도화,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없애기, 공직정착 등 4개 분야에 감사·징계 부담을 줄이는 사전컨설팅제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소극행정 엄정조치 등 9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또 군은 대내외 홍보의 일환으로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관련 범정부적 홍보자료를 게시하고 우수공무원과 우수사례를 추천받는 등 군민과의 소통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부안읍사무소를 현장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한시생활지원사업 현장 점검

권익현 부안군수, 부안읍사무소 들러 어려움 등 고충 나눠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부안읍사무소를 현장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권 군수는 현장방문에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담당자, 민원인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함께 고충을 나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은 일정 금액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촉진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한시생활지원금은 지난 22일부터 지급됐으며 사업기간은 7월 말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로 지난 2월 탈락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규모는 급여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부안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을 통해 1인 가구 최소 40만원(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자)에서 6인 가구 최대 192만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까지 지급된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수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용해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 달라"며 "이번 사업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소비촉진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친환경 방제로 청정부안 이미지 높여야"

장은아 부안군의원 5분발언

부안군의회 장은아 의원(부안·행안 선거구)이 최근 제30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약품을 이용한 도시 가로수 및 공원 방제로 부안의 청정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은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농산물 구입 기준으로 잔류 농약 등 안전성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그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판단 기준으로 그 농산물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따라서 부안에 대한 친환경·청정 이미지를 더욱 높여 이 후광효과로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부안 관내 공원과 청림·개암사 벚꽃 길 등에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약제를 이용해 방제를 하고, 이를 군민과 관광객에게 홍보 하여 부안의 청정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안=김석진 기자